

# 광주체고 여자배구부,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 쾌거

2026 익산보석배 결승서 전주근영여고 3-1 제압

2013년 창단 후 첫 정상...박병희 감독 지도자상

광주체육고등학교 여자배구부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광주체고 여자배구부는 최근 전북 익산시 남성고체육관에서 열린 '2026 한국 중·고 배구 2차 연맹전(익산보석배)' 여자고등부 결승에서 전주근영여고를 세트스코어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결승전에서 1세트를 먼저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이후 반격에 성공했다. 2세트부터 경기 주도권을 되찾은 광주체고는 3세트 듀스 접전과 4세트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내리 세 세트를 따내 역전 우승을 완성했다.

이번 우승은 2013년 창단 이후 처음 거

둔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광주체고 여자배구부는 마침내 전국 정상에 오르며 광주 학교체육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주장 김은수(3학년)와 이유진(3학년)을 중심으로 선수들은 대회 기간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조직력과 끈끈한 팀워크를 앞세워 전국 최강으로 평가받는 전주근영여고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뒀다.

광주체고 여자배구부는 새벽과 야간 훈련을 병행하며 체력과 기술을 끌어올렸고, 앞서 출전한 두 차례 전국대회에서 모두 3위에 오르며 경합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경기 운영 능력이 이번 우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026 한국 중·고 배구 2차 연맹전(익산보석배)' 여자고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여자배구부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선수단을 이끈 박병희 감독은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경경사를 누렸다.

전남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고 여자배구부의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경경사를 누렸다. 이번 전국대회 우승은 광주체육고 여자배구부의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경경사를 누렸다. 이번 전국대회 우승은 광주체육고 여자배구부의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경경사를 누렸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으로 축하한다"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우수 선수 육성과

체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스포츠 경쟁력 향상과 2028 광주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시청자미디어센터,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24~26일 신안 장산도서 광주센터 미디어축제 시즌14

섬마을 청소년들이 뉴스와 뮤직비디오, 단편영화를 직접 만들고, 주민들은 스마트폰 촬영법과 답페이크 예방 교육을 받는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올해 도서·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가운데 광주·전남권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깨동무 시즌14'를 선보인다.

16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도서·산간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이 가운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남도신안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섬마을 미디어축제 '미디어로 어

이런 행사는 지리적 여건으로 미디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추진하는 '미디어로 아깨동무'는 섬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창작 역량을 키우는 대표적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전국 콘텐츠 페스티벌서 3개 팀 수상

스토리텔링 부문 최우수상 2팀·영상 부문 장려상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최근 전국 규모의 언어치료 분야 공모전인 '제6회 공강·소통·나눔 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 2팀 등 3개의 상을 수상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언어재활사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페스티벌은 스토리텔링, 영상, 포스터 디자인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인식 증진, 언어재활사 자긍심 고취, 언어재활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해소 등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였다.

동신대 언어치료학과는 총 4개 팀이 참가해 3팀이 상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대학원생 김수완씨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과 김혜영 씨의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상 부문에서는 3·4학년 재학생 백경민·김영서·양은진·정예은씨가 공동 제작한 '언어재활사의 빙산의 일각'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과, 이들을 지원하는 언어재활사의 역할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며, 언어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을 지도한 이은경 교수는 "학생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최근 전국 규모의 언어치료 분야 공모전인 '제6회 공강·소통·나눔 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 2팀 등 3개의 상을 수상하며 역량을 입증했다.

사진제공=동신대학교

들이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전공지식과 창의적 역량을 발휘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사소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언어재활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전남신보, 현혈 캠페인으로 생명나눔 실천

전남신보보존재단은 올해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명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함께 하는 '사랑의 현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현혈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지속되는 혈액 보유량 감소 상황 속에서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임직원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 마련됐다.

전남신보 임직원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 광주전남혈액원을 방문해 현혈에 참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현혈증을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 광주교통공사, 상생파트너십 노사화합 워크숍

행정통합 대비 광역교통체계 비전 공유  
임직원·노조 간부 40명 참석 협력 다짐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경남 통영시 금호동영마리나리조트에서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노사화합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노사발전재단의 '상생파트너십'을 위한 '2026년 노사화합 워크숍'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노·노·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선진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사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고용노동정책과 제도 변화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 비전, 공사의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경남 통영시 금호동영마리나리조트에서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 노사화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로드맵, 퇴직연금 제도 등 주요 현안과 이

슈를 공유하며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사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노사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광역교통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비 지원을 통해 노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24년 연속 무분규·무파업 사업장의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게시판

- 결론** △김광호(여수시청 도로교통국장)·박현주(전남도청 주무관) 씨 딸 수연(비기닝뮤직댄스아카데미 원장) 양, 김태연·박남남씨 아들 도영군=21일(일) 낮 12시 메리포엠 B1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람마루통합조회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부조지원 062-369-4009.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모집** △구당침·뜸 수감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감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은세 (음력 5월 3일)

- |                          |                            |                           |
|--------------------------|----------------------------|---------------------------|
| 48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다     | 49년생 낭패를 볼 것이니 주의하라        | 50년생 내 것은 그대로 있으니 걱정 마라   |
| 60년생 명분에 이끌리다보면 실속이 없다   | 61년생 재물을 탐하지 마라            | 62년생 뇌물용 재물은 해가 되니 거절하라   |
| 72년생 혼자서는 외로우니 단결하라      | 73년생 희소식 거래가 성사되는 운        | 74년생 손을 함부로 쓰면 화를 부른다     |
| 84년생 호사다마 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아  | 85년생 현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하라     | 86년생 원에서 다시 시작하라          |
| 96년생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피라       | 97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해결 될 것이다     | 98년생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
| 51년생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         | 52년생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 것     | 53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
| 63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 64년생 시비하지 마라               | 65년생 거래가 이뤄져도 손해만 있다      |
| 75년생 투기성이 있는 일에 손대지 마라   | 76년생 공로 치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친다  | 77년생 배우자와 말 다툼을 주의하라      |
| 87년생 진행 중이던 일이 막혀 고민할 운  | 88년생 우려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다    | 89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라        |
| 99년생 판세에 도움 되지 않는다       |                            |                           |
| 54년생 주위를 잘 살피도록 하라       | 55년생 애사들에게 부탁하면 해결된다       | 56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다      |
| 66년생 진력을 한다면 배가 돼 돌아오겠다  | 67년생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           | 68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이 마무리된다   |
| 78년생 공든 탑이 무너지라          | 79년생 갈등이 우려되니 조용히 하여라      | 80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보게 된다   |
| 90년생 두 번 생각해서 행동하라       | 91년생 조바심이 날수 있다            | 92년생 일찍 귀가하라              |
| 57년생 북서쪽에 투자는 절대 안 된다    | 58년생 지인 믿고 일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다 | 59년생 자족하는 생활을 한다면 평탄한 날   |
| 69년생 감당하기에 힘들면 도움을 청하라   | 70년생 말살수가 우려된다             | 71년생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하라   |
| 81년생 뜻하지 않던 선물을 받는다      | 82년생 의상이나 얼굴에 변화를 주자       | 83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한 것을 얻는다   |
| 93년생 중간 점검이 성과를 보장하게 될 것 | 94년생 급한 마음이 일을 그르칠 것이다     | 95년생 공부한 만큼 대가 있다         |